

다른 동물보다 우월하고 다른 것 중 하나가 인간은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산다는 것이다. 세상이 어려울수록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고, 지금 힘 있는 정부나 기업들의 관심도 미래 준비이다(미래 산업, 미래의 먹거리, 미래의 에너지등).

이렇게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하며 사는 삶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창1:27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 속에 적어도 네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인 영성이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 본능, 종교 본능이 있다고 한다.

둘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더 발전시키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인 창조성이다.

하나님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흔히 달란트, 무한한 잠재력, 천재성, 이런 말들이 다 여기서 나왔다. 어릴 때 어떻게 이것을 찾아 개발해줄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한다.

셋째는 세상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옹서도 하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런 성품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서로 돕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 능력을 선한 일에 쓸 수 있다. 선악을 구별하는 양심도 여기서 나온 것이다.

넷째는 미래를 생각하고, 미리 준비하고 살 수 있는 능력이다. 이것을 비전의 능력이라고 한다.

성도가 나의 CVDIP를 가지고 살아야 할 이유가 이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Covenant), 미래를 보고(Vision), 꿈을 꾸고(Dream), 구체적인 형상을 그리며(Image), 도전하는 것(Practice)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왜 지금 사람들은 이 축복을 다 놓치고 살고 있을까? 그것이 창3장에서 시작된 원죄의 저주이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창3:5),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창3:6),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다(창3:9-10).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아닌 귀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고,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오히려 세상을 파괴하고, 사람의 양심도 죽고 점점 약해지고, 희망을 잃어버린 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심판을 향해 가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을 운명, 저주라고 한다. 그 속에 개인의 저주, 가정과 가문의 저주, 영원한 저주도 있다.

1. 여기서 빠져 나와 본래의 축복을 회복하며 사는 것을 구원이라고 한다.

1)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것이다(창3:15, 사7:14, 롬1:4)

그 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시고(요14:6), 십자가로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사53:5, 롬8:1-2),

첫 인생뿐 아니라 지금도 모든 인생과 세상을 어둠을 끌고 가는 사단의 권세를 밟으신 것이다(창3:15, 요일3:8)

2)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본래의 축복을 회복하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허락하신 것이다.

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고전3:16), 인을 치셨다고 했다(엡1:13)

매순간, 모든 문제 사건에서 그분의 인도와 역사하심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이 된 것이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 개인과 가정과 현장 속에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도 무너지는 것이다(마12:28)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기도를 하고, 이 축복을 24시(예배 때에, 평상시에)로 누리는 훈련을 해야 한다.

② 이 성령의 충만을 누릴 때 체험되는 것이 또 있다. 그것이 미래를 보고, 준비하고, 도전하는 것이다.

요엘 2:28에 특히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자는 이 축복을 누릴 것이라고 했다.

행2:17을 보면 무식하고, 실패도 하고, 핍박 속에 있던 제자들과 마가다라방 성도들이 이 축복을 체험했다.

본문의 갈렙도 이 축복을 누린 것이다. 평생 미래를 보고, 준비하며, 지금 85세 나이에도 미래를 도전한 것이다.

2.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미래 세가지이다.

우리가 예배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다가, 24 집중 속에서 누려야 할 미래의 축복이다.

1) 하나님이 준비하신 승리가 있는 미래이다.

① 구원받기도 문제, 갈등, 실패할 수 있고, 주의 일을 하다가 억울함, 핍박도 당할 수 있다.

마지막 때까지 속이는 사단이다(벧전5:8, 엡6:12). 어려움 당할 때마다 힘이 빠지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온다.

내가 언제까지 이런 어려움을 당할 것인가 하면서 낙심, 절망하기도 한다.

②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셨다.

사단이 무릎 꿇을 때까지 우리를 다스리시고(고전15:25),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했다(고전15:57-58)

평강의 하나님이 반드시 사단을 우리 발 앞에서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롬16:20).

이 약속을 붙잡은 자는 이미 승리한 자이고(요일4:4),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계21:7)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완전 승리의 언약 속에서 이미 승리했고, 계속 승리할 미래를 붙잡으라.

2)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과 응답이 있는 미래이다.

① 계속 되는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을 미래가 이것이다.

하나님이 다른 축복과 응답을 준비하셨다(사43:18의 “새 일”, 렘33:3의 “크고 비밀한 일”, 롬8:28의 “선한 일”)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회복해서 기도하면 그 시간을 맞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준비한 미래이다.

② 혹시 주의 일 하다가 핍박 받고,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백배의 축복을 준비하셨다고 했다(막10:29-30).

본문의 갈렙도 가나안 정탐군으로 다녀온 이후에 불신앙 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왕따 수준이 되었을 것이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다음에는 늘 여호수아의 그늘 아래 감추어진 자처럼 살았다. 그래도 상관 없었다.

그 갈렙은 믿음으로 기다리다가 지금 가나안 정복이라는 축복의 시간표 속에 있는 것이다(세계복음화).

85세가 된 지금의 나이에도 40년 전과 다를 바 없는 힘과 건강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다(10-11절).

3) 하나님이 준비한 영원한 미래이다.

① 오래 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영원한 안식, 영원한 영광, 영원한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심은 그대로 거둔다고 했다(갈6:8). 그래서 땅에만 심지 말고 영원한 곳에 심으라고 했다.

우리의 숨은 헌신과 수고, 기도, 헌금, 전도와 선교, 모든 것이 하늘에 쌓는 것이라고 했다(마6:1-21).

② 본문의 갈렙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남들이 다 원하지 않는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한 이유가 그것이다.

훗날 그 땅이 그 갈렙의 후손으로 오는 다윗 왕가의 지역이 되고, 그 곳이 예루살렘 지역이 된다.

그 후손을 통해 그리스도가 오신다. 우리는 영원한 왕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와 함께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다.

결론-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했다(시126:6). 우리의 믿음의 눈물, 기도의 눈물, 모든 숨은 헌신과 수고의 눈물들이 하나님이 준비한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한다.